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창세기 15 주차 (창 9:20-10:20)

(2016년 3월 27일-2016년 4월 2일)


(제 4 권 15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4 권-제 1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3 월 2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다 (주입)

오늘의 본문 (창 9:20~21)

- (20 절) 노아는 흙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וַיְהִי לְנֹחַ אִישׁ אֲדָמָה)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וַיִּטֵּעַ כֶּרֶם)
(21 절)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וַיִּשְׂכַּר וַיִּתְעַב וַיִּתְחַלַּץ בְּחַיָּתוֹ)
그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וַיִּתְחַלַּץ בְּחַיָּת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는 다시 일상의 삶을 되찾았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땅을 일구며 살았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후에 와인을 마셨다. 참고로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와인’(יַיִן)은 영어의 와인과는 달리 포도주뿐 아니라 일반적인 술을 다 아우르는 단어다. 노아가 마신 술이 포도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술을 마셨고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성경에서 ‘와인’(יַיִן)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극명하게 갈린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빵과 ‘와인’(יַיִן)을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왔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때 멜기세덱의 손에 들린 ‘와인’은 구원의 표시요 예배의 상징이었다. 히브리어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설명한다. 멜기세덱은 와인과 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자기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와인’은 구원의 상징으로 쓰인다.

하지만 와인이 전혀 반대로 쓰인 경우도 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와인으로 인해 너무도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오기도 했다. 아마도 그때 롯은 그곳을 떠나야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았고, 딸을 소돔 사람들과 혼인시키기까지 하며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롯의 가정만은 구원받았다. 삼촌 아브라함을 권념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롯의 아내의 죽음은 이 가정에 최악의 씨앗이 되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차례로 동침했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부녀상간을 통해 롯의 두 딸은 각기 아들을 낳았다.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다. 하나님은 후에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게 하셨다 (신 23:3).

이처럼 ‘와인’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곳은 자신의 장막이었다. 공공 장소도 아니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벗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오늘날로 치면 자기 침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거니 말이다. 게다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 설령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노아를 질책할 수도 없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

도 바울이 ‘술취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근거로 노아를 비난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에피소드는 노아가 ‘와인’을 먹고 취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벌거벗었다’와 ‘장막’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도 벌거벗고 살았다. 그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벌거벗음’은 선악과를 따 먹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벌거벗음은 선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 이후는 악이고 부끄러움이다.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로 띠를 만들어 신체의 일부를 가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덮어 주었다. 그 이후부터는 몸을 가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에르바’(עֶרְבָּ)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가라’(גָּרָ)다. 이 단어는 이미 덮고 있던 커버를 치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미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다음은 장막이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헤르’(אֹהֶל)다. 일반적으로 긴 천을 이용해서 가림막을 한 모든 것들이 ‘오헤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오헤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도 ‘오헤르’다. ‘오헤르’는 안전한 곳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오헤르’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서 쉼을 누리는 장소다. 모든 거주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장소다. 하나님의 성막 ‘오헤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무죄 선언을 받는 곳이다. 히브리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간은 반드시 그 손에 제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 흠없는 제물 말이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를 보지 않고 대신 그 손에 든 제물을 보시고 인간을 용서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헤르’는 인간들이 무죄 선언을 받는 곳이며, 이 세상에서의 애쓰음을 내려 놓고 진정한 쉼을 얻는 곳이다.

노아는 자신의 ‘오헤르’에서 술을 마시고 옷을 벗어버렸다. 사실 그의 행동에서 비난거리를 찾는 건 과욕이다. 괜히 술마시고 벌거벗는 바람에 아들 인생 망치고 자손들 간에 반목하게 만든 노망든 노인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개인적인 일상사를 통해 그 후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계신다. 우리는 술마시고 벗은 노아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행하시는 일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소한 일상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펼쳐가신다. 인간들에게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이런 사소한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는 족속이 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눈으로 일상을 보고 있나요? 모든 일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와 가린 자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22~29)

(22 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וַיֵּרָא חָם אֲבִי כְנַעַן אֶת עֶרְוַת אָבִיו)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밖에서 말하였습니다.(וַיִּגֵּד לְשָׁנָיִם אָחָיו בַּחוּץ)

(23 절) 셈과 야벳은 옷을 들어,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 그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וַיִּקַּח שֵׁם וַיָּבֵט אֶת-הַשְּׂמֹלֶה וַיְשִׂימוּ עַל-שָׁקְמָם שְׁנַיִהֶם וַיִּלְכוּ אַחֲרָיִת וַיִּכְסּוּ אֶת עֶרְוַת אָבִיהֶם)

그들의 얼굴은 뒤를 향하여, 그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וַיִּכְסֻּם אַחֲרָיִת וְעֶרְוַת אָבִיהֶם לֹא רָא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성경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로 함을 소개한다. 함을 강조하는 것인지 가나안을 강조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질 않는다. 함은 이미 아들이 여럿이다. 성경에 소개된 아들만도 네 명이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그들이다. 통상적으로 성경은 통상적으로 낳은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창세기의 저자는 통시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기록한 이 사건은 단지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훗김에 손자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각해 보라. 노아는 창세기 5장 30 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그것도 그의 아버지 라멕을 소개하는 곳에서 말이다. 노아는 950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는 500살이 넘어서야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다. 셈, 함, 야벳이 그들이다. 성경에는 그가 50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선택을 받은 자다. 노아 나이 500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가정하면 길게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며 보낸 셈이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그것이 노아에 대한 기록의 전부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살아 오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 중에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바로 9장 20 절부터 27 절 사이에 기록된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이 노아의 사생활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그는 인류를 대표하는 삶을 살았다. 인류를 대표해서 방주를 지었고, 인류를 대표해서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났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에서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노출하고 있다. 어찌면 와인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일이 비단 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노아의 일상사였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날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רא)다. 이 단어는 우연히 지나가다 눈에 띄었다는 뜻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관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

면에 이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광경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다. 이 단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심히 바라본 것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브리 문화와 기독교 문화 공히 고의적인 의도로 나체를 보는 것 자체를 성적인 죄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함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은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자. 설령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취한 것이나 또 그 때문에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일이 지탄받아 마땅한 수치스런 일이었다고 치자. 당신이 그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버지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망신을 주겠는가, 아니면 그 허물을 덮어 주겠는가? 이 점에서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조용히 뒷걸음질쳐 장막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다. 기독교는 타인의 실수를 질책하는 종교가 아니다. 게다가 인간들로 하여금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수양하라고 독려하는 종교도 아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처럼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종교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다른 이들보다 선하게 사는 의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죄인들인 것이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허물을 덮어 주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은 놀라운 은혜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벗었음을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는 추상 같은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며 아버지의 허물을 정죄했다. 정죄는 늘 옳고 정의롭게 보인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죄가 없으므로 책잡을 게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쑥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지으며 산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인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남의 허물은 잘도 지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결코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을 주신 적이 없다.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상태를 알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옷으로 가려한 아버지를 덮어 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 허물은 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함인가 아니면 셈이나 야벳인가?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가 아니면 들춰 내어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인가? 허물을 덮는 자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약하게 보인다. 반면 허물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강하고 정의롭게 보인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 허물 많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동체보다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원하신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당신도 남의 허물을 덮어 줌으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타인의 잘못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신의 허물은 덮고 남의 허물은 떠벌리지는 않나요?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24~29)

- (24 절) 노아는 그의 와인에서 깨어났고, (וַיִּקֶץ נֹחַ מַיְיָנוּ)
그의 작은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וַיַּדַע אֶת אֲשֶׁר-עָשָׂה-לוֹ בְּנוֹ הַקָּטָן)
- (25 절) 노아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אָרוּר כְּנָעַן)
그는 그의 형제들을 위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עֶבֶד עֲבָדִים יִהְיֶה לְאָדָמוֹ)
- (26 절) 노아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בְּרוּךְ יְהוָה אֱלֹהֵי שָׁם)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וַיְהִי כְנָעַן עֶבֶד לְמוֹ)
- (27 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창하게 하시고, (וַיַּבְרֵךְ אֱלֹהִים לְיַבֶּט)
야벳으로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וַיֵּשְׁבֶן בְּאֶהֱלֵי-שָׁם)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וַיְהִי כְנָעַן עֶבֶד לְמוֹ)
- (28 절)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 년을 살았습니다. (וַיְחִי-נֹחַ אַחֵר הַמַּבּוּל שְׁלֹשׁ מֵאוֹת שָׁנָה וַחֲמֵשִׁים שָׁנָה)
(29 절) 노아는 모두 950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הִי כָל-יְמֵי-נֹחַ תְּשַׁע מֵאוֹת שָׁנָה וַחֲמֵשִׁים שָׁנָה וַיָּמָ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가 술이 깨자 그의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진노했다. 노아의 진노는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그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불과 얼마전까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노아가 어떻게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되었을까? 설령 어떤 경로로든 알았다고 치자. 아무리 함이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가? 가나안은 그의 직계 손자가 아닌가? 마치 그 동안 버르고 있던 차에 함이 제대로 걸려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노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일을 일러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성경은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함을 막내 아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히브리어로는 콰탄 (קָטָן)이라는 단어는 ‘작은’(small), ‘적은’(littl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찮은’이란 의미도 들어 있다. 노아의 반응으로 볼 때 함은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아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으로는 함은 막내가 아닌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에게 함은 가장 하찮은 존재였다. 모르긴 해도 노아는 평소에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함이 한 일을 듣자마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게 아니겠는가? 성경은 노아의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다. 손자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호하다. 왜 가나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밀도 끝도

없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을 위한 종들의 종이 될 거란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다.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이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실제로 노아의 저주는 현실이 된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모두 죽이거나 종으로 삼았다.

뿌리깊은 힌두교 전통으로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이 존재한다. 흔히 알고 있는 힌두교 계급의 가장 하층민인 수드라는 그래도 인간 취급을 받는다. 인도에는 그보다 아래인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다. 그들을 달리트라 부른다. 불가촉 천민이란 일체의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 않거니와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단 한가지 이유는 윤회 사상 때문이다. 다음 세상에서는 달리트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짐승보다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옷은 시체에서 얻어야 하며, 마을로부터 격리된 외곽 지역에 산다. 그들이 지나간 길은 오염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를 하며 지나가야 한다. 인도에는 이런 달리트가 무려 1억 6천명에 달한다.

노아는 가나안을 달리트처럼 되라고 저주한다. 종들에게 속한 종이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쯤되면 노아의 저주가 얼마나 심한 저주이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아의 예언이 아니라 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눌러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는 신약에 많이 나온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과과의 대화가 나온다. 잠시 그 대화를 재현해 보자.

가나안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 15: 21 ~28)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가나안을 개라고 말씀하신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복속된지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개’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가혹한 천형을 받은 가나안 족속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퍼부어졌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과거의 모든 죄고들과 반목들, 저주들을 말끔하게 풀어내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받은 저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 푸셨다. 그 옛날 가나안에게 내린 노아의 저주까지도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서로 반목하며 대립했던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야벳의 후손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1~5)

- (1 절)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וְאֵלֶּה תּוֹלְדֹת בְּנֵי-נֹחַ שֵׁם הָם וְחָם)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וַיִּוְלְדוּ לָהֶם בְּנִים אַחֵר הַמְּבוּל)
- (2 절)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בְּנֵי יַבֵּת גֹּמֶר וְמָגוֹג וּמְדֵי וַיִּנוּ וְתִבְלֵל וּמְשֶׁךְ וְתִרְסַר)
- (3 절)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וּבְנֵי גֹמֶר אֲשַׁכְנַז וְרִיפַת וְחַגְרֵמָה)
- (4 절) 야완의 아들: 엘리사, 달시스(스페인), 깃딤, 도다남. (וּבְנֵי יָוָן אֱלִישָׁה וְתַרְשִׁישׁ כְּתִים וְדֹדָנִים)
- (5 절) 이들로부터 바닷가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 갈라졌습니다. (מֵאַלְפָּה נִפְרְדוּ אֲנִי הַגּוֹיִם בְּאַרְצֵתָם) 각각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 종족의 가족을 따라. (אִישׁ לְלִשְׁוֹנוֹ לְמִשְׁפָּחָתָם בְּגוֹיֵי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족보는 야벳으로부터 시작하여 함, 셈의 순으로 기록된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뛰어 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하다.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리 장황하게 기록할 이유도 없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은 단지 누구의 자손이라는 정보 외에도 그들이 사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두루 포함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야벳의 후손들이다. 물론 많은 인구 이동과 족속들의 흥망성쇠로 인해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에스겔서 38 장은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 여럿이 등장한다. 에스겔서 38 장 1 절~6 절, 15 절~16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 내리라”(겔 38:1-6).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겔 38:15-16).

여기에 고멜, 마곡, 두발, 메섹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게다가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족속은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하다가 이후에 바벨론을 침관할 때 도구로 쓰인다. 예레미야 51 장 24 절~27 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땅에 기를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려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렘 51:24-27).

야완의 아들 깃딤은 헬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키프러스 섬 등에 거주하였고, 도다님 사람들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살던 헬라인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다. 바벨로니아는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페르시아는 친식민지 정책을 취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갈 무렵 헬라가 침공했다. 헬라는 야벳의 후손들이다. 헬라의 침공 이후 이스라엘을 지배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했다. 유대인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유대주의가 탄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유대주의는 후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자손은 주로 이스라엘을 침관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쟁에 또다시 그 이름이 언급된다(계 20:8).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아의 자손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간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각자가 정한 장소에서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성취해가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전에 계획한 일도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 원치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 애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섭리를 느끼고 있는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지금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련사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6~14)

- (6 절)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이집트), 붓(리비아), 가나안. (וּבְנֵי חָם כּוּשׁ וּמִצְרַיִם וּפּוּט וְכוּנְעֵן.)
- (7 절) 구스의 아들: 스바, 하월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 (וּבְנֵי כּוּשׁ סָבָא וְחַוִּילָה וְסַבְתָּה וְרַעְמָה וְסַבְתָּכָא) 라아마의 아들: 스바, 드단. (וּבְנֵי רַעְמָה שָׁבָא וְדָדָן.)
- (8 절)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וּכוּשׁ יָלַד אֶת־נִמְרוֹד) 그는 이 땅의 처음 나타난 용사입니다. (הוא הָחֵל לְהִיזֹת גִּבּוֹר בְּאֶרֶץ.)
- (9 절) 그는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הוא־הָיָה גִבּוֹר־צַיִד לִפְנֵי יְהוָה) 그래서, '니므롯 같이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עַל־כֵּן יֵאמָר כְּנִמְרוֹד גִּבּוֹר צַיִד לִפְנֵי יְהוָה)
- (10 절) 그의 통치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입니다. (וַתְּהִי רֵאשִׁית מַמְלַכְתּוֹ בָּבֶל וְאַרְדּוֹ וְאַכַּד וְכוּלְנֵה בְּאֶרֶץ שִׁנְעָר)
- (11 절) 그 땅에서부터 그는 앗수르로 가서, (מִן־הָאֶרֶץ הַהִוא יָצָא אֲשּׁוּר)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건설했고, (וַיִּבְנוּ אֶת־נִינְוָה וְאֶת־רַחֲבֹת עִיר וְאֶת־קַלְח)
- (12 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וְאֶת־רֶסֶן בֵּין נִינְוָה וּבֵין קַלְח) 그것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הוא הָעִיר הַגְּדוֹלָה)
- (13 절) 미스라임(이집트)는 루딤, 아나뫼, 르하빔, 납두힘을 낳았고, (וּמִצְרַיִם יָלַד אֶת־לוּדִים וְאֶת־עֲנַנְמִים וְאֶת־לֵהָבִים וְאֶת־נַפְתָּחִים)
- (14 절) 바드루심, 블레셋이 나온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וְאֶת־פְּתֹרְסִים וְאֶת־כַּסְלִיִּים וְאֶת־אֲשּׁוּר יָצְאוּ מִשָּׁם פְּלִשְׁתִּים וְאֶת־כַּפְתָּ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저자는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셈의 계보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만큼 구속사에서 함의 후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들과 철저히 대척점에 서게 된다. 물론 가나안 족속처럼 이스라엘에게 지배당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이 중에서 성경은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세 아들의 후손에 주목한다. 왜 그럴까? 후에 이들은 역사에서 이스라엘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구스의 후예들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고, 미스라임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미리 장악하고 살게 된다. 그들은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형세로 세력을 형성해 갔으며, 약속의 땅에 일찌감치 자리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함의 후손들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나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사실상 함의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심각한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는 수모를 겪었다. 그 후 이집트를 나온 아브라함은 아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낸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갔다. 남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그 약속이란게 참으로 모호하다.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다.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질문한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창 15:8).

그러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언약식을 행하도록 한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는 비몽사몽 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신다. 창세기 15 장 13 절과 14 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창 15:13-14).

이 예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기까지 사백 년이 넘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이 왜 함의 후손인 미스라임(이집트)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도록 허용하셨을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단련하기 위해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이에게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다. 구원은 속량되는 것이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노예의 삶이 없으면 자유가 된지 알 도리가 없다. 미스라임을 이용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노예의 삶을 체험하게 했다. 게다가 미스라임의 장자들을 유월절에 죽임으로써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제물인 어린 양의 피흘림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미스라임의 장자들은 희생시켰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함의 후손들이 먼저 보여 준 셈이다. 그뿐 아니다. 미스라임 즉,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부활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마스라임은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일으켰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이룩한 번영은 택하신 백성을 훈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깔아두신 포석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이 결국엔 당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대적자의 아이콘 구스의 후손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6~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함의 후손들은 단지 구속을 가르치기 위한 조련사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자처했다. 함의 첫째아들인 구스의 후손이 그랬다. 성경은 특별히 구스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에 주목하고 있다. 니므롯은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용사였다. 용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보르’ (גִּבּוֹר)는 ‘힘이 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 ‘용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찬사로 들린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찬찬히 읽어보면 이 말이 웬지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다. 니므롯은 단지 용사, 영웅, 사냥꾼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 이미 신의 위치에까지 오른 대단한 존재였다. 그는 넓은 땅을 아우르며 성을 쌓아 자기 영역을 거침없이 확장해 간 사람이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에는 거침없는 침입자의 모습과 잔혹한 통치자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능력자요 실세가 바로 니므롯이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니므롯의 통치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살아남은 홍수 심판은 이제는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인간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시날 땅에 정착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탑을 쌓았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는 딱 하나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 니므롯의 후예가 그런 자들이다. 그들에게 더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꼭대기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함의 후예들은 나중에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의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오판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각각 멸망당한다.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변질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왕 요시아가 죽자 남유다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 함의 후손인 바벨론 제국이 다시 등장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인 남유다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의 심장부를 내주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성전은 불탔으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기구들은 침략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시날 땅으로 옮겨졌다.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

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렘 39:6-10).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했다. 마침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화마에 휩싸였다. 이처럼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을 철저히 유린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같은 일들을 바벨론 왕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직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한 시련을 통해 훈련하려 하셨다. 잔혹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우고 흥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합 1:5-11).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 하나님은 그 강함을 꺾어 유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이용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순하게 훈련시켜 택하신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그들, 불같은 성격으로 끝없이 세력을 넓히려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계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 이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실지를 준비하고 계셨다. 니므롯의 후손들은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 충분히 사나워져야 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도록 훈련되어야 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남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독특한 배우자로 인해 힘들어 하지는 않는가? 유난히 힘든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는 없는가? 앞길을 가로 막는 방해꾼이 사라지기는 커녕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지는 않는가?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가 아닐까?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악속의 땅 심장부를 차지한 가나안 족속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15~20)

- (15 절) 가나안은 그의 첫째 시돈과 헛을 낳았고, (וַיִּבְנֶן יָלֵד אֶת־צִידֹן בְּכֹרוֹ וְאֶת־חֵט) (16 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וְאֶת־הַיְבוּסִי וְאֶת־הַקְּנַזִּי וְאֶת־הַגִּרְגָּשִׁי) (17 절) 이휘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וְאֶת־הַחִוִּי וְאֶת־הָעַרְקִי וְאֶת־הַסִּינִי) (18 절)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아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וְאֶת־הָאַרְוָדִי וְאֶת־הַצְּמָרִי וְאֶת־הַחֲמָתִי) 이후로 가나안 족속은 흩어져 나갔습니다. (וְאַחַר כֵּן נִפְצְרוּ מִשְׁפְּחוֹת הַכְּנַעֲנִי) (19 절)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방향으로 가사까지였고, (וַיְהִי גְבוּל הַכְּנַעֲנִי מִצִּידֹן בְּאַכָּה גְרָרָה עַד־עֵלְיָ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방향으로 라사까지(였습니다). (בְּאַכָּה סֹדֶמָה וְעֵמֶרָה וְאַדְמָה וְצִבְיִם עַד־לְשֹׁעַ) (20 절) 이들이 함의 아들들입니다. (אֵלֶּה בְנֵי־חָם) 그들 가족과 그들 언어를 따른, (לְמִשְׁפְּחֹתָם לְלִשְׁוֹנָתָם) 그들의 땅과 그들의 종족에 의한. (בְּאַרְצֹתָם בְּגוּיָ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제 함의 막내아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다. ‘또 가나안이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나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다양한 캐릭터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내는 대하 역사 드라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주인공이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인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에서 있는 백성들이라면 다른 많은 민족들은 택한 백성들과 때론 협력 관계로, 때론 대립 관계로 등장한다. 함의 막내아들 가나안의 후손은 그의 형들의 후손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가나안도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다. 하지만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눈엣가시처럼 매우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노아는 가나안을 향하여 셈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은 악연의 연속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생각하고 삼촌을 떠나 소돔으로 갔다. 롯은 소돔인들과 어울려 살았고 어느새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롯은 가나안의 후손들 중 하나로 살았을 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하신다 (창 15:16 참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연계하셨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해야만 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가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수 3:10).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당연히 쫓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다. 그랬기에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 가나안의 후손들은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미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묘한 방법을 통해 예언을 성취해 가신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 성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잠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이성을 진멸하고 아이 왕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았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들이다(수 9:1 참조). 그런데 그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은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트여아림이었다. 그들은 피를 내어 죽음을 면했다. 그들은 멸망과 죽음 대신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였다. 그들의 피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 그들과 화친한 후 사흘만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황은 엇질러진 물이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수 9:23).

노아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예언은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신다.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종으로 전락한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삶을 살았지만 엄연히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대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은 엄연히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포로 귀환 때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노아의 후손들 중 선택받지 못한 두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의 큰 틀을 만드셨다. 수천 년 뒤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포석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도 광대해서 그 끝을 가늠해 볼 수도 없고, 너무도 섬세해서 디테일 하나 하나를 헤아려 보기도 어렵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과 그 계획대로 사건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세밀한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에 놀라고, 그분의 섬세한 손길에 은혜를 느낀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독자다. 하나님 말씀을 한 자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으셨나요? 언약 밖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셨습니까?